

한국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조공민* · 김용섭**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 논문 요약 〕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1년 3월 7일부터 5월 2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공기관 내 노인대학, 무료급식소 등의 75세 이상 후기노인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농촌지역 노인의 개인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는 건강, 경제력, 자존감이, 부적 정서에는 건강과 자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는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가, 부적정서에는 사회적 지지와 여가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지역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정적정서에는 여가참여, 사회적 지지, 자존감, 교육, 집단주의, 부적정서에는 여가참여,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에는 여가참여, 성별, 집단주의, 사회적 지지, 교육, 자존감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한국 농촌지역 노인, 주관적 안녕감, 개인적 요인,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제1저자)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 교수(교신저자)

I. 서론

최근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경제적 성장의 결과는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안녕감은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지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어 무엇이 노인의 안녕감을 높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매우 상대적이며 사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해 방식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농촌노인 현황과 복지 상태를 들여다보면 자못 충격적이다. 농촌 지역은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다. 2008년 기준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25.9%로 대도시의 16.5%¹⁾를 훨씬 웃돌고 있다. 게다가 읍·면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33.7%는 월소득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니 외로움과 빈곤을 벗 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노인들이 경제, 의료,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도시노인 위주로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농촌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지어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특정변수간의 단편적인 관계나 심리적인 요인들에 치중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 즉, 사회적 지지나 여가참여, 집단주의와 같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여가활동 및 주변생활환경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노후 생활의 질적 향상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위나 판단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지배적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 유교의 영향으로 집단공동체 문화가 잔존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문화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안녕감은 내부와 주변 환경에서 오는 감각 메시지를 통해 발전하며 꾸준히 변하므로, 개인의 주관성에 따른 중재가 요구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진입이

1)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0.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 삶의 질적 측면인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안녕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의 현상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노후가 불안하다. 우리 사회가 농촌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모두가 농촌을 떠날 때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농촌지역에서 여전히 현역이며 주축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 및 귀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들을 설정하고,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농촌지역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안녕감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을 규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상태”²⁾로써, 두 개의 측면인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³⁾

정서적 요인은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를 포함하며,⁴⁾

2)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ssell Sage Foundation, 1976.

3)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1999, pp.276-302.

4)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e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985, pp.71-75.

인지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⁵⁾ 정서적 요인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단순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독립적이고 다른 상관변인들을 가지고 있다. 즉, 고통이나 슬픔, 불안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즐거움이나 행복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음으로,⁶⁾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감정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균형으로 측정되어진다.

인지적 요인의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모든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건강, 안락함, 부, 명예, 육체적 안락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 자체에 행복의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⁷⁾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측면과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WHO(2001)에서는 활동적 고령화를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건강, 사회참여 및 경제적 보장을 제시하였다.⁸⁾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 활동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삶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개인적 요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있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 경제능력, 자존감이 있다.

노인에게 있어 건강은 곧 독립적인 생활의 근간을 의미하며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객관적인 건강지표 외, 노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건강 수준 또한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⁹⁾ 노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라고 인지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질병의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녕감을 유지시키는 반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질병을 발생시키고 만성 질환의 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건강하다고 지각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인

5) Andrews, F. M., & Withey, S. R.,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Y: Plenum, 1976.

6) Diener, R. B., Diener, E., & Tamir, M., The psychology of subjective well-being, Daedalus, 133, . 2004, pp.18-25.

7)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1984.

8) 전지원,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9) 김미령, "전기·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58), 197-222, 2006. 손신영, "농촌 노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10) 권오균,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봄호), 2008, 7-32.

태도와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을 가져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능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결과 생활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¹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인 50.0%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70% 이상 노인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소득 확보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¹²⁾ 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및 지역사회에 자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의료적 서비스 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와 지위 상실도 가져오므로 주관적 안녕에 상당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자존감은 삶의 여러 가지 기본적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행복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며 노인의 안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존감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에 대한 적응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결핍이나 배우자의 상실 등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노인의 자존감은 신체적 행위와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¹⁴⁾ 노인의 자존감은 노후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있는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으로 정의되며¹⁵⁾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조언, 지도, 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갈등적일 경우에는 노인의 복리가 감소되었다.¹⁶⁾ 친구와의 만남이 많을수록, 이웃과의 유대에서 특히

11) 박기남,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여성연구』, 2004, pp. 5-34.

12)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3) 김연희·김기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7(가을호), 2002, 157-189.

14) 최영애, “노인들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가을호), 2003, pp.27-47.

15) Cohen, S. & Syme, S. L.,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 S. Leonard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5.

16) 노병일·모선희,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독립적인 가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지 자원이 되며 노인의 자아 가치감과 자기 충족감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고령일수록 이웃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가족이나 친척, 지역사회기관으로 부터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¹⁸⁾ 노인은 일상생활에 있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지원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의 역할 상실과 소외감을 줄이고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여가에 대한 개념은 참여자의 관점, 시대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가는 느낌(feel) 자체라기보다는 느낌이 유발되도록 행하는 것(do)으로 참여자가 자신을 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¹⁹⁾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활동이론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노인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은 대체로 단순하고 정적이며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많다. 자기개발이나 이상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여가활동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농촌 노인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²¹⁾ 노인의 여가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의 유지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²²⁾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심리사회 문제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란 태어날 때부터 줄곧 집단에 개인이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동안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 주는 사회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이다.²³⁾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를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집단으로 보며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내집단에의 통합과 조화를

2007, pp. 53-69.

17) 김영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20(1), 2010, pp. 265-308.

18) 강혜영·서남숙·김영희, "일 도시 독거노인의 연령 군별 건강양상", 「대한간호학」, 34(6), 2004, pp. 1057-1068.

19) Kelly, J. R., Leisure(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90.

20) 강현정, "농촌여성 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26, 2009.

21) 이정화·한경혜,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3(1), 2003, pp.209-238.

22) Matsuo, M., Nagasawa, J., Yoshino, A., Hiramatsu K. and Kurashiki, K., Effects of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on Quality of Life. Yonago Acta Medica, 46, 2003, pp.17-24.

23)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Book, 1991.

강조하고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유학사상의 영향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로 여겨져 왔으나 점차 서구문화의 유입과 사회의 발달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나이가 어리고 고학력일수록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²⁴⁾

집단주의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단원이 초점이 되어 공적 자의식과 상호의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집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며 관계 중심적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공감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고 분노수준이나 분노표출을 통제하는 경향이 높았다.²⁵⁾ 집단주의 성향자들은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높고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며 사회적지지 지각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성은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수적으로 많지만,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만성질환과 활동성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대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증가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지만,²⁶⁾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건강상태를 나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이나 사회활동, 수입, 사회적 지지 등의 자원이 줄어들게 되어 안녕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과 관련되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이 원활하고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에서도 성별, 연령, 학력, 종교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통제된 후에는 학력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노인의 종교 참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소외감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24) 한규석·신수진,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999, pp.293-310.

25) 조공호,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2002, pp.91-111.

26)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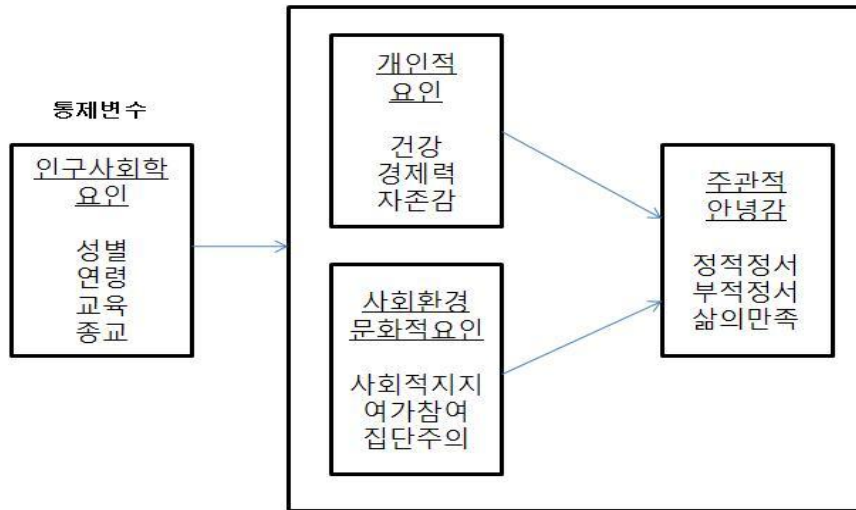
27) 최흥권, “노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령자 집단과 초고령집단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28) 김영범·이승훈,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노년학』, 28(1), 2008, pp. 1-18.

29) 고승덕, “노인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기존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첫째, 개인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323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7일부터 5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조사자가 1:1면접방식으로 설문내용의 응답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자필기입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직접 설문 내용을 읽어주면서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와 사회복지를 전공한 석사이상 2명과 조사방법에 충분히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10명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공기관 내 노인대학,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 졌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건강지위, 경제지위, 자존감을,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은 사회적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를,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측정은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현희·김은정·이민규(200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적정서 10문항과 부적 정서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정적정서 5문항과 부적정서 5문항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지난달 다음의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 하셨습니까?”를 질문하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918, .936$ 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차경호(1995)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5점 척도(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907$ 이었다.

2) 건강

건강에 대한 측정은 김명소 등(2003)의 성인의 행복한 삶의 척도 중 '건강'요인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정형 문항은 긍정형 문항으로 바뀌서 측정하였다. 건강 척도는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다', '나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나는 나와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서 젊고 건강하다'의 3문항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3점에서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57이었다.

3) 경제력

농촌지역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측정은 김명소 등(2003)의 성인의 행복한 삶의 척도 중 '경제'요인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제력의 척도는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살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나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었다'의 3문항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3점에서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동북아연구〉

록 경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력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10이었다.

4) 자존감

자존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Self-Esteem Scale) 척도 중 총 6개 문항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6점에서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53이었다.

5) 사회적 지지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 관계망 및 노인의 고립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LSNS(Lubben Social Network Scale)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2개의 하위영역(가족을 포함한 혈연관계망, 친구, 이웃 등의 비혈연관계망) 각 3문항씩 총 6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2$ 였다.

6) 여가참여

여가참여는 여가활동 참여는 김선자(2001)의 척도를 참고하여 농촌지역 노인의 실정에 부합되는 12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자주 한다~ 전혀 안한다)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727이었다.

7) 집단주의

Triandis(1994)가 개발하고 김의철(1997)이 변안, 구재선(2005)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 중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5점에서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주의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01이었다.

8) 통제변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 종교 등을 조사하였으며 선행연구(고승덕, 1995; 권중돈·조주연, 2000; 김영범·이승훈, 2008; 백경숙·권용신, 2007; 이정화·한경혜, 2003)에 의해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사회학적요인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종교는 더미변수(성별은 남성=1, 여성=0, 종교는 무=1, 유=0)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령과 교육은 등간비율척도를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 경제력, 자존감,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지 조사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표준편차, 신뢰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이 114명(35.3%), 여자노인이 209명(64.7%)으로 여자노인이 더 많았다. 연령분포에서는 75-79세 174명(53.8%), 80-84세 93명(28.8%), 85-89세 47명(14.6%), 90세 이상 9명(2.8%)으로 75-79세 노인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무학 203명(62.8%), 초등졸 90명(27.9%), 중졸 13명(4.0%), 고졸 8명(2.5%), 대졸이상 9명(2.8%)으로 무학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유 118명(36.5%), 무 205명(63.5%)으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노인이 더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114	35.3
	여자	209	64.7
연령	75-79	174	53.8
	80-84	93	28.8
	85-89	47	14.6
	90이상	9	2.8
교육	무학	203	62.7
	초등졸	90	27.9
	중졸	13	4.0
	고졸	8	2.5
	대졸이상	9	2.8
종교	유	118	36.5
	무	205	63.5
합계		323	100.0

2. 개인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서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erason의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대체적으로 0.6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IF) 역시 1.094~3.393으로 기준치인 10미만을 만족하여 전체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t=3.141, p<.01$), 경제력($t=2.458, p<.05$), 자존감($t=5.791,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32.2%였다(표 2).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t=-2.515, p<.05$)과 자존감($t=-2.520, p<.0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16.4%였다. 즉, 건강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부적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력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t=2.175, p<.05$), 경제력($t=4.364, p<.001$), 자존감($t=3.612,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31.8%였다. 이는 건강, 경제력,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2〉 개인적 요인이 정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864	.158		5.464	.000		
건강	.220	.070	.234	3.141	.002	.383	2.609
경제력	.197	.080	.188	2.458	.014	.363	2.758
자존감	.294	.051	.287	5.791	.000	.864	1.158
$R^2=.322, \text{ Adj. } R^2=.315, F=50.399$							

〈표 3〉 개인적 요인이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4.427	.172		25.689	.000		
건강	-.192	.076	-.208	-2.515	.012	.383	2.609
경제	-.150	.087	-.146	-1.720	.086	.363	2.758
자존감	-.139	.055	-.139	-2.520	.012	.864	1.158
$R^2=.164, \text{ Adj. } R^2=.156, F=20.818$							

〈표 4〉 개인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253	.159		7.879	.000		
건강	.153	.070	.162	2.175	.030	.383	2.609
경제	.352	.081	.335	4.364	.000	.363	2.758
자존감	.184	.051	.180	3.612	.000	.864	1.158
$R^2=.318$, Adj. $R^2=.312$, $F=49.601$							

3.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서 〈표 7〉과 같다.

정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t=5.954$, $p<.001$), 여가참여($t=7.627$, $p<.001$), 집단주의($t=2.655$, $p<.01$)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36.5%였다. 즉,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정적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t=-3.053$, $p<.01$), 여가참여($t=-5.542$,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19.1%였다. 즉,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가 높을수록 부적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주의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정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82	.245		-.742	.459		
사회지지	.273	.046	.298	5.954	.000	.793	1.262
여가참여	.690	.091	.377	7.627	.000	.816	1.226
집단주의	.150	.056	.121	2.655	.008	.962	1.039
$R^2=.365$, Adj. $R^2=.359$, $F=61.126$							

〈표 6〉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5.336	.272		19.651	.000		
사회지지	-.155	.051	-.173	-3.053	.002	.793	1.262
여가참여	-.556	.100	-.309	-5.542	.000	.816	1.226
집단주의	-.112	.063	-.092	-1.794	.074	.962	1.039
$R^2=.191$, Adj. $R^2=.184$, $F=25.158$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은 지지($t=5.133$, $p<.001$), 여가참여($t=8.758$, $p<.001$), 집단주의($t=4.295$,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40.0%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 7〉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47	.239		-1.032	.303		
사회지지	.229	.045	.250	5.133	.000	.793	1.262
여가참여	.773	.088	.421	8.758	.000	.816	1.226
집단주의	.237	.055	.190	4.295	.000	.962	1.039
$R^2=.400$, Adj. $R^2=.394$, $F=70.858$							

4.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8〉에서 〈표 10〉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 종교를 통제한 후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의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표 8〉과 같이 정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델1에서 성별($\beta=.200$, $p<.01$), 연령($\beta=-.256$, $p<.001$), 교육($\beta=.161$, $p<.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이 높을수록 정적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개인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2에서는 건강($\beta=.244, p<.01$)과 경제력($\beta=.191, p<.05$), 자존감($\beta=.311, p<.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34.1%였다.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3에서 사회적 지지($\beta=.239, p<.001$)와 여가참여($\beta=.284, p<.001$), 집단주의($\beta=.094, p<.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43.2%였다. 이와 같이 3단계를 거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정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여가참여($\beta=.284, p<.001$), 사회적 지지($\beta=.239, p<.001$), 자존감($\beta=.232, p<.001$), 교육($\beta=-.137, p<.05$), 집단주의($\beta=.094, p<.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와 같이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델1에서 성별($\beta=-.127, p<.05$), 연령($\beta=.161, p<.01$), 교육($\beta=-.130, p<.0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 낮을수록 부적정서가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2에서는 건강($\beta=-.225, p<.05$), 경제력($\beta=-.169, p<.05$), 자존감($\beta=-.160,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17.5%였다.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3에서 사회적 지지($\beta=-.132, p<.05$)와 여가참여($\beta=-.229, p<.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21.8%였다. 이와 같이 3단계를 거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여가참여($\beta=-.229, p<.01$), 사회적 지지($\beta=-.132, p<.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정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B(Beta)	B(Beta)	B(Beta)
통계 변수	성별		.363(.200)**	.206(.113)*	.184(.101)
	연령		-.269(-.256)***	-.017(-.016)	.060(.057)
	교육		.155(.161)**	-.117(-.121)	-.132(-.137)*
	종교		-.088(-.049)	-.137(-.076)	.037(.020)
개인적 요인	건강			.229(.244)**	.115(.123)
	경제력			.200(.191)*	.064(.061)
	자존감			.318(.311)***	.238(.232)***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	사회지지				.218(.239)***
	여가참여				.521(.284)***
	집단주의				.117(.094)*
상수			20.912***	16.839***	14.389***
F값			16.541***	23.325***	23.743***
R ² 값			.172	.341	.432

* $P<.05$, ** $P<.01$, *** $P<.001$ (주: 성별 남성=1, 여성=0, 종교 무=1, 유=0)

<표 9>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B(Beta)	B(Beta)	B(Beta)
통제 변수	성별	-.226(-.127)*	-.083(-.046)	-.086(-.048)
	연령	.166(.161)**	-.029(-.028)	-.074(-.071)
	교육	-.124(-.130)*	.086(.091)	.101(.106)
	종교	.121(.068)	.147(.083)	.016(.009)
개인적 요인	건강		-.208(-.225)*	-.128(-.139)
	경제력		-.174(-.169)*	-.075(-.073)
	자존감		-.161(-.160)**	-.102(-.102)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	사회지지			-.118(-.132)*
	여가참여 집단주의			-.411(-.229)** -.092(-.076)
상수		20.912***	16.839***	14.389***
F값		7.612***	9.562***	8.719***
R ² 값		.087	.175	.218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남성=1, 여성=0, 종교 무=1, 유=0)

<표 10>과 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델1에서 성별($\beta = .296, p < .001$), 연령($\beta = -.324, p < .001$), 교육($\beta = .128, p < .0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2에서는 경제력($\beta = .282, p < .01$), 자존감($\beta = .199, p < .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36.7%였다.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3에서 사회적 지지($\beta = .148, p < .01$)와 여가참여($\beta = .353, p < .001$), 집단주의($\beta = .155, p < .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는 정도는 46.4%였다.

이와 같이 3단계를 거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여가참여($\beta = .353, p < .001$), 성별($\beta = .215, p < .001$), 집단주의($\beta = .155, p < .001$), 사회적 지지($\beta = .148, p < .01$), 교육($\beta = -.142, p < .05$), 자존감($\beta = .110,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B(Beta)	B(Beta)	B(Beta)
통제 변수	성별	.539(.296) ^{***}	.377(.206) ^{***}	.393(.215) ^{***}
	연령	-.342(-.324) ^{***}	-.124(-.117) [*]	-.067(-.064)
	교육	.124(.128) [*]	-.112(-.116)	-.137(-.142) [*]
	종교	-.154(-.085)	-.191(-.106) [*]	.016(.009)
개인적 요인	건강		.127(.135)	.013(.014)
	경제력		.296(.282) ^{**}	.143(.136)
	자존감		.204(.199) ^{***}	.113(.110) [*]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	사회지지			.136(.148) ^{**}
	여가참여			.649(.353) ^{***}
	집단주의			.193(.155) ^{***}
상수	22.455 ^{***}	7.379 ^{***}	-.200	
F값	27.398 ^{***}	26.124 ^{***}	26.969 ^{***}	
F ² 값	.256	.367	.464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남성=1, 여성=0, 종교 무=1, 유=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を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2011년 3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공기관 내 노인대학, 무료급식소 등의 75세 이상 노인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 종교)을 통제 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표준편차, 신뢰도, t-test, ANOVA 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노인의 개인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는 건강, 경제력, 자존감이, 부적정서에는 건강과 자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정

〈동북아연구〉

서와 삶의 만족도에는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집단주의가, 부적정서에는 사회적 지지와 여가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지역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 문화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정적정서에는 여가참여, 사회적 지지, 자존감, 교육, 집단주의, 부적정서에는 여가참여,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에는 여가참여, 성별, 집단주의, 사회적 지지, 교육, 자존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노인문제의 핵심은 만성질환, 빈곤, 실직, 외로움으로 집약될 수 있다.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회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예방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화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의료, 경제,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도시지역 노인 위주로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되어 복지서비스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농촌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단과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노년기는 역할상실과 소외 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높은 시기임을 반영하여 '홀몸노인 지켜보기 프로그램', '만성질환자 안심 활동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복지 체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인 일자리창출은 물론, 소득증대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 노인들의 성취감과 결속력 및 사회와 자신의 안녕에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연구된 노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요인이 부각된 경향이 있는데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사회 환경 문화적 요인도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노인의 관계망이 좁아져 외로움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농촌지역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유학사상의 전통과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의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제약성과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비용부담 등을 반영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 안녕

감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노인을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대상의 범위를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농촌은 그래도 인심이 넘치는 곳이다.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원시적 공동체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인간다운 교감이 가능한 곳이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없을 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곳이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간적, 자연적 자원을 노인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정, “농촌여성 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009.
- 강혜영·서남숙·김영희, “일 도시 독거노인의 연령 군별 건강양상”, 「대한간호학」, 34(6), 2004.
- 고승덕, “노인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구계선,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권오균,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봄호), 2008.
- 권중돈·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2000.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003.
- 김미령, “전기·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58), 2006.
- 김선자,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연희·김기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7(가을호), 2002.
- 김영범·이승훈, “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노년학」, 28(1), 2008.
- 김영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20(1), 2010.
- 노병일·모선희,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2007.
- 박기남,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여성연구」, 2004.
- 백경숙·권용신,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2007.
- 손신영, “농촌 노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정화·한경혜,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3(1), 2003.
- 이현희·김은정·이민규, “한국판 정적정서 및 부정적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2003.

〈동북아연구〉

- 전지원,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분석”,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정경희 · 오영희 · 석재은 · 도세록 · 김관우 · 이윤경 · 김희경,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금호,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5집, 1996.
- _____,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2002.
- 차경호, “한국 일본 및 미국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1995.
- 차승은 · 한경혜 · 이정화, “농촌노인의 지각된 건강과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2002.
- 최영애, “노인들의 우울, 자존감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가을호), 2003.
- 최흥권, “노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령자 집단과 초고령집단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0.
- 한규석 · 신수진,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999.
- Andrews, F. M., & Withey, S. R.,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Y: Plenum, 197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Cohen, S. & Syme, S. L.,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 S. Leonard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5.
-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198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e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1985.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1999.
- Diener, R. B., Diener, E., & Tamir, M., The psychology of subjective well-being, Daedalus, 133, 18-25, 2004.
-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Book, 1991.
- Kelly, J. R., Leisure(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90.
- Matsuo, M., Nagasawa, J., Yoshino, A., Hiramatsu K. and Kurashiki, K., Effects of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on Quality of Life. Yonago Actaetica, 46, 17-24, 2003.
- Myre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1995.

- Rosenberg, E. L., Levels of analysis and the organization of affect.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47-270, 1998.
- Triandis, H. C.,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1994.
- Watson, D., Clark, L. A., & Tellega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1988.

〈동북아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Sense of the Elderly at Korea Rural Areas

Cho, Gong-Min · Kim, Yong-Seob

To find out major factors influencing on the later elderly's subjective well-being senses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living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ndividual factors(health , finance status, self-esteem) and the social environmental culture factors (social support, leisures, collectivism). For collecting necessary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323 elderly ones over 75 years old from March 7th to May 20, 2011.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enior community centers, the senior colleges in public institutions, and free-meal sites located in Damyang-gun, Gokseong-gun, Gurae-gun in Jeollanam-province and the Sunchang-gun in Jeollabuk-province.

As the result analyzing the data, the investigators found following facts. First, among the individual factors, the health, the finance status and the self-esteem affected on their posi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 health and the self-esteem affected on negative emotions. Second, as the social environmental culture factors, the social support and the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collectivism influenced on the posi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 social support and the leisure participation was shown to have influence on negative emotions. Third, for the relative influence power difference of individu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individual factors as well as social environmental culture factors are also important.

Key Words : Elderly at Korea Rural Areas, Subjectie Well-being Sense, Individual Factors, Social Environmental Culture Factors

투고일 : 2011.10.30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